

진보네트워크센터 계간지
정보운동 액트온 | ACT ON

정보운동 액트 ACT



2010년 제3호

“써보지 않겠는가?!”
김프, 우분투 - 자유와 공유의 향해

HUMAN RIGHTS IN INFORMATION SOCIETY

ACT ON

정보운동 액트온 | ActOn

"써보지 않겠는가!"
김프, 우분투 - 자유와 공유의 향해

통권 제10호 | 2010년 제3호




매뉴얼 진보네 :버그+의견제안 사이트맵 구독하기

추석
G20 둘러싼 4머길

★블로거진 1387호

오늘
미개
그개
전개

 <p>작업</p> <p>항상 다중태스크로 작업을 하는 송우씨는 이날 코다리와 팔달문을 길도가 1300이 넘는 밑줄에 담았다. 왜, 코다리와 팔달문일까... <small>여기저기</small></p>	 <p>뉴클림판짤</p> <p>극기야 뉘꼴이 자리에서 어 쟁의전화 대표가 뉴클림판을 쓴다. 자식이 원치않는 살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대 환, 주변환경에 의해 내... <small>어리버리</small></p>	 <p>벌써 10월인가?</p> <p>지겨운 이 세상을 빨리 탈출해보고 싶다. 그런 욕구가 약간 있는데 근데 뭘 해야 되고 싶지? 그냥 뭘까. 배운 것이 득점필이라고 이것... <small>날라리</small></p>	 <p>오랫만에 들어오는 블로그.</p> <p>집이라고 있는 곳은 근대 가있는 동안 생긴 달이고, 동네도 보람고, 서촌은 댐 겹고, 그렇다고 어디갈... <small>그들</small></p>
---	---	---	---

진보넷 로그인

 저장

 로그인

[이메일 찾기 /](#) [암호 찾기](#)

라디오 바로 듣기

듣는다 자세 <>

듣는다 Joan Baez - Mary Hamilto... <>

태그 분류

- 자전거
- 농사
- 육아
- 여행
- 책
- 영화
- 민화
- 야구
- 노동

최근 업데이트

새 글 **최 응답**

- **차차** Fallen Angels (1995)
- **no chr!** 辰G20투쟁 (뉴스레터 74)
- **이니스** 600년 서울 도성을 안내하는 자원..
- **ou_topia** 정신현상학 A. 의식 I. 감각적 관..
- **모두** 8월 만에 만든 음반
- **모두** [미디어 오늘-미디어 현장]이주인에..
- **해미** 밀린 사진 정리
- **ou_topia** 정신현상학 서설 번역 초안을 마..
- **나루** 잠시 한숨
- **나루** 오지은 1집

블로그 안팎 이슈



불법 다운로드와 저작권

↳ "불법 다운로드"의 정치경제..

↳ "불법 다운로드"의 정치경제..

진보네 알람판

- 논의사항/오류 등 처리 늦어짐 공지(한..
- 진보넷에서 함께 일할 기술활동가를 찾..

새로 올린 스킨

whiteBoard
hiBar.net
whiteBoard for Textcube- 텍스트...

블로거 광고

2011 운동달력 기념일 봐주세요!!

이 하나의 화면이 여러분 앞에 보여지기 위해
 답 없는 기획과 회의, 두 대의 서버, 네 명의 개발자, 두 명의 디자이너, 열 명의 스킨편집자, 69명의 유물론자,
 매뉴얼 작업, 디자인 작업, 세팅, 홍보, 편집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셔도 좋다고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
 함께 만들어가는 진보넷,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코드 : 분기점


살면서 선택의 분기점에 놓여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를 염두해 두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가', '내가 해야만 하는가'가 그것입니다. 이 세가지 생각은 곧 능력, 의지, 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한번에 다 맞아 떨어진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두개만 맞아떨어져도 선택하는데 있어서 크게 고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세가지 중 하나라도 추구하려 하고 나머지를 희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거나 해야만 하는 것을 해서 하고 싶은 것을 미래로 미뤄둡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 원하는 것만 하는 경우 우리는 보통 무책임 하다거나 용기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이 '좋은'에 대한 판단은 선택의 분기점마다 달라 질 것입니다. 고려해야 할 것 중에서 의무가 능력과 의지에 앞설 수도 있고, 의지가 능력과 의무를 앞설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고 싶은 일을 능력껏 하는 것이 좋을 것일지만, 그것이 개인을 넘어서는 영역까지 확장된다면 고려해야 할 변수는 점점 많아집니다. 정말 능력이 있는지, 잘 해나갈 의지가 있는지,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일을 수행 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지 등등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려의 판단이 어긋났을 때 발생하는 파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좋은 예가 되겠죠. 딱히 다른 예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임기 절반이 지난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별 일 없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욕심을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질서를 더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악화시키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함으로 가득해야 할 가을이 치솟는 물가에 신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한의 계급세습에 대한 수많은 이들의 분노가 현실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운동 ActOn은 정치평론 잡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김치는 먹습니다.

 laron : @picotera

계간 정보운동 액트온 ActOn

통권 제10호 | 2010년 제3호

발행일 2010년 10월 11일

등록일 2003년 8월 1일

발행처 진보네트워크센터

발행인 이종희

편집인 라론

편집 라론

사진 빼트

인쇄 천광문화사

등록번호 서울 바03553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홈페이지 <http://act.jinbo.net>

이메일 picotera@jinbo.net

전화 02-774-4551

ISSN 1976-1953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본 정보운동 ActOn에 실리는 모든 내용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영리금지'를 따릅니다.

www.freeuse.or.kr/license/2.0/yg

표지의 벡터 이미지는 Dryicons(<http://dryicons.com>)의 이미지를 사용했음을 밝혀둡니다.

차례

통권 제9호 | 2010년 제2호

“써보지 않겠는가!”

김프, 우분투- 자유와 공유의 향해

코드 : 분기점

laron

003

section 001. 김프, 우분투- 자유와 공유의 향해

007

세상을 그리는 도구! 김프(GIMP)!

김준

008

우분투 한국(ubuntu korea)

강분도

020

section 010. 기고 글 모음 031

일상적인 사찰의 매카니즘과 감시국가 **장여경** 032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036

사찰공화국과 전자주민증 - 주민번호의 재앙이 주민증으로 **장여경** 043

스마트폰 감청과 빅브라더 **장여경** 047

불법다운로드를 권장합니다 **laron** 050

해적당 소개 **오병일** 055

section 011. 진보네 워크센터 059

독립영화와 저작권 **오병일** 060

해적이 온다! - Amelia Andersdotter 소개 **오병일** 065

서버모금에 참여한 유물론자들 + α 068



section 001. 김프, 우분투- 자유와 공유의 향해

세상을 그리는 도구! 김프(GIMP)!

김준

008

우분투 한국(ubuntu korea)

강분도

020

세상을 그리는 도구! 김프(GIMP)!

김준 김프 코리아 <http://gimp.kr/>

1. 김프(GIMP)란

GIMP(GNU¹ Image Manipulation Program의 약자, ‘김프’ 라고 부릅니다)는 래스터(raster) 그래픽² 편집 프로그램이며, 자유 소프트웨어³ 입니다. 김프는 사진 편집이나

1 <http://www.gnu.org/gnu/manifesto.ko.html> GNU 선언문

2 모니터 화면은 픽셀(Pixel)이라고 불리는 작은 점(작은 사각형)들이 모여 구성됩니다. 같은 면적에 이미지를 구현함에 있어 많은 양(작은 크기)의 픽셀을 사용하면,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작은 양(큰 크기)의 픽셀을 사용하면 흐리고, 선명하지 못한 이미지가 얻어집니다. 이러한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비트맵(Bitmap), 또는 래스터(Raster)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이와 비교되는 용어로는 벡터(Vector) 이미지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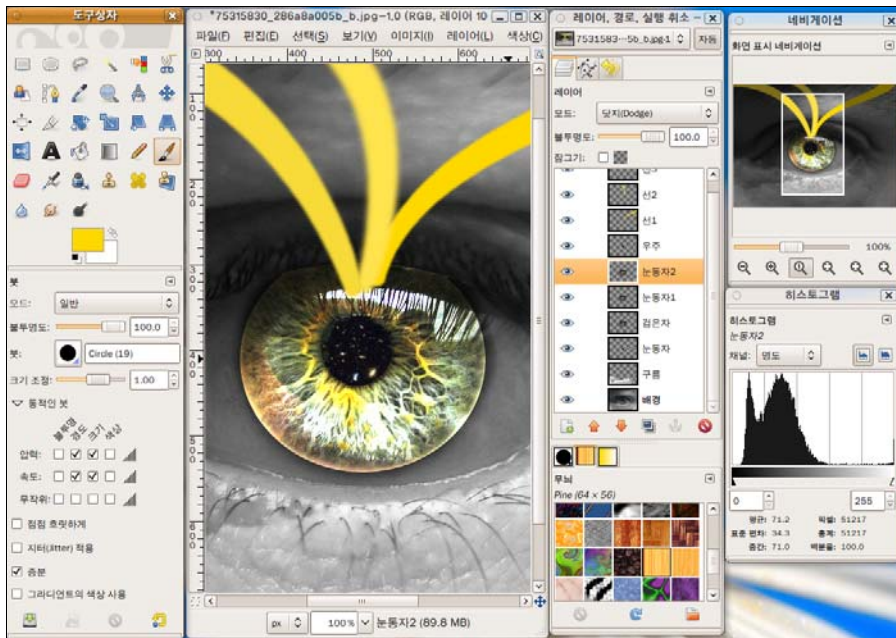
3 <http://www.gnu.org/philosophy/free-sw.ko.html> 자유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 /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ko.wikipedia.org/wiki/자유_소프트웨어

이미지 생성 및 편집 등 다양한 이미지 작업을 하기에 적절합니다.

김프는 간단한 페인트 프로그램, 전문적인 사진 편집 프로그램, 온라인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 대량의 이미지 렌더링, 이미지 포맷 변환기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프는 확장성이 뛰어나며 유연합니다. 플러그인과 확장기능을 누구나 제작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세계의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또는 한 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이유로, 다양한 이유들로 만들어진 수많은 플러그인과 스크립트들이 자유 소프트웨어의 일환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작업 부터 굉장히 복잡한 이미지 작업까지 이 스크립트들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프는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한국에서는 컴퓨터 운영체제로 MS(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즈가 많이 사용되지만, 전세계에는 리눅스를 비롯한 다양한 운영체제⁴가 존재하며, 전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김프 구동 화면〉

4 아이폰으로 유명해진 애플사의 Mac OS X, 안드로이드 폰으로 한국에서도 대중적으로 보급되는 리눅스 등.

2. 김프의 간략한 역사

김프는 1995년에 UC버클리에 재학 중이던 스펜서 김벨(Spencer Kimball)과 피터 매티스(Petter Mattis)⁵의 학기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GIMP의 뜻은 General Image Manipulation Program 이었습니다.

1996년 1월에 0.54 버전을 공개 발표하면서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1997년, 그 둘이 졸업한 후 GNU 프로젝트로 포함되면서 GIMP의 뜻은 현재의 뜻인 GNU Image Manipulation Program로 바뀌었습니다.

2004년 3월, 김프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GTK 라이브러리⁶가 2.0 버전으로 크게 수정되었고, 김프도 그에 따라 이전 1.X 버전에서 2.0 버전으로 바뀌면서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김프 로고>

현재(2010년) 김프는 2.6.10 버전을 출시했으며, 2011년 초순경 2.8 버전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프 탄생시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각 버전별로 발전한 내용은 http://www.gimp.org/about/ancient_history.html 를 참고하세요.

5 이 둘은 버클리 대학의 학생클럽인 eXperimental Computing Facility의 회원이었습니다. 김프 파일 확장자가 XCF인 것은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6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컴퓨터를 켜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버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버튼이 나타나기 까지를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버튼을 만들 메모리를 확보한다 → 어떤 모양의 (버튼)그림을 그릴건지 그래픽 카드에 알려준다 → (버튼)그림을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버튼이 눌리는 모양을 화면에 보여주고, 다음 작업으로 무엇을 수행할 것인지)을 할 것인지 메모리에 기억시킨다 → 화면에 버튼이 보이게 그래픽 카드에 명령한다'와 같이 비록 설명을 하면서 단순화 시켰지만 굉장히 많은 작업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것을 가령 명령어 하나로, `make_button(색깔, 버튼이 눌렸을 때 할 작업)` 이렇게 하나로 단순화 시키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들(버튼 만들기, 정보창 보여주기 등등)의 모음이 라이브러리입니다

2.1 김프 개발과 탄생에 관련된 사이트

- 김프 공식 페이지 <http://gimp.org>
- 김프를 개발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http://gtk.org>
- 김프 개발의 철학 정신 <http://gnu.org>
- 김프 라이선스 <http://www.gimp.org/about/COPYING>

2.2 한국에서의 김프 역사

2.2.1 김프 코리아 연혁

- 2005년 12월 김프한국 운영 시작 : 관리자 iolo
- 2007년 10월 관리자 변경 및 명칭 변경 “김프코리아” : 관리자 Mr.Dust
- 2010년 02월 관리자 변경 : 관리자 shriekout

2.2.2 김프 프로그램 및 매뉴얼 번역 활동 연혁

- 1999년 김프 프로그램 한글화 시작: 남상현
- 2004년 프로그램 번역자 변경 : 장동수
- 2005년 12월 김프 매뉴얼 번역 시작 : 번역자 Mr.Dust
- 2006년 12월 김프 매뉴얼에 한국어 문서 공식 포함
- 2007년 08월 프로그램 번역자 변경 : 최지희(Mr.Dust)
- 2010년 02월 프로그램 번역자 변경 : 황병희
- 2010년 02월 매뉴얼 번역자 변경 : 황병희

3. 김프에 대한 잡설

김프란 무엇인가라고 질문 한다면, 대부분 ‘모른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김프를 접해 본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짜 보샵! 우왕ㅋ굳ㅋ!”

현재, 상업용 소프트웨어로 많이 판매되고 있고, 일반적인 경로이든 어둠의 경로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 속에 깊숙히 들어와 있는 것이 어도비사(Adobe)의 포토샵(Photoshop)입니다. 그리고, 포토샵과 비슷하게 작동하며, 비슷한 성능⁷을 보여주는 것이 김프이기 때문에 김프를 아는 사람들은 흔히 포토샵과 비교해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포토샵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무료⁸로 배포되고 있는 김프를 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3.1 김프... Why not?

실제로 그래픽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두가지 이유쯤으로 김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7 글을 쓰고 있는 도중에 김프 코리아의 회원분(disv)이 알려주신바에 의한다면, “브러시라는 단면 하나만 보자면, 분명 프리웨어툴중에 브러시관련 필압옵션을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해주는 툴은 없습니다. ...(중간 생략)... 프리웨어로서는 레벨이 확실히 엄청나게 높은데, 그렇다고 상용툴 수준이냐고 물어보면 ... (중간 생략)... 인쇄작업하는데에는 아무래도 불안하거든요. ... (중간 생략)... 추천할만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선 안정성과 작업영역이 커져도 작업하는데 크게 지장없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시급하게 갖춰야 겠지요. 구색은 어느정도 갖춰냈으니. 전 그래서 오히려 2.8에 예정된 인터페이스 개선보다는 이런 부분부터 좀 잡아줬으면 하는 바램이 더 큼니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하시네요. 이렇게 아쉬운 점을 인용하는 것이 김프를 홍보하기로 해놓고 오히려 역방향으로 가는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게 F/OSS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bugs.gimp.org>를 보시면, 김프에 있어서의 한계에 대한 버그(문제점) 리포팅이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지 포토샵과 비교하는 측면보다는 사용자들이 김프를 사용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을 직접 공개함으로써 공개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갑니다.

8 무료로 배포되고 있지만, 김프가 가지고 있는 GPL 라이선스 내용에 의한다면 상업적 배포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와 소스코드를 공개한다면 말입니다.

첫번째, ‘김프가 뭔지 모르겠다’ 와 ‘김프가 안정적이야?’ 라는 이유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프가 뭔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에게는 김프를 소개하면 되겠지만 - 사실 소개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 김프를 소개 받고는 과연 ‘공짜’ 프로그램이 안정적인가 하는 문제를 떠올립니다.

즉, 몇 시간 동안 작업을 하고, 어느 순간 프로그램이 다운된다든가 해서 그 작업이 날아가는 것 따위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공짜’ 라는 인식자체는 과연 누가 안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잘 못된 점을 고치고, 프로그램 개발에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겠느냐 하는 의심에서 시작해서 프로그램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더라도 설명이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접 김프를 사용해 보면서 느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첨언을 붙이자면, 전세계에 많은 개발자들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무보수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프로그래밍이 재밌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그래픽 관련 프로젝트를 하는데, 김프 프로그램을 분석하다 보니,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저는 학생인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데, 오픈소스가 대규모 프로젝트로 열려 있는 공간이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회사에서 오픈소스 페스티벌이 열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F/OSS 관련 자유 그래픽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한 번 참여해 보고 싶었습니다.”

...

등등 수많은 이유 때문에 참여⁹를 합니다.

9 <http://developer.gimp.org/> , <http://www.libregraphicsmeeting.org/2010/> , <http://socghop.appspot.com>, ... 한국에

그리고, 현재 이 규모가 매우 커져서 안정적으로 버그가 수정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김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김프유저스의 포럼¹⁰이나 김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F/OSS 진영의 거대 프로젝트인 그놈¹¹ 행성¹²을 방문해 보시면, 각자의 다양한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발이나 개선에 참여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어떤 효과나 어떤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필터의 호환성 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포토샵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어떤 작업들을 할 때 어떤 필터를 사용하고, 포토샵 작업 그대로 psd(PhotoShop Document)로 저장을 하고, 다른 작업자가 불러와서 연결 작업을 하고 등등이 김프와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업으로 그래픽 관련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작업의 연결이 불가능해서 김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프에서 포토샵을 읽어올 수 있고, 포토샵과의 호환성에 대해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¹³

그리고,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을 김프에서 직접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고 - 오류 보고가 있으면, 누군가 또다시 수정을 해서, 김프를 업데이트 합니다 - 플러그인 호환문제도 계속적으로 해결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F/OSS의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김프만 놓고 보더라도 개발자에는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 전문 프로그래머 부터 학생, 주부, 노동자, 농민 등등. 수많은 직업군에 속해 있고, 수많은 나이의 차이가 있고, 수많은 가치관 부터 수많은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어떤 기업화된 정형(定形)에 머물지 않고, 각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령 프로그래밍에 대해 전혀 모르고 단지 김프 사용자일 뿐이지만 김프 UI 브레인스톰¹⁴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그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누군가가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해 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김프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앞으로도 김프의

서의 이런 흐름을 보시려면 <http://kldp.org/node/115178> 여기를 참고하세요

10 <http://www.gimpusers.com/forums/>

11 GNOME, GNU Network Object Model Environment 의 약자입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http://gnome.org> 이며, 한국에는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인 <http://www.gnome.or.kr> 사이트가 있으며, 한국 그놈 사용자 전용 채팅방이 있습니다.

12 <http://planet.gnome.org/>

13 <http://developer.gimp.org/NEWS-2.6>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포토샵에서는 김프를 읽어오지 못합니다. 😊

14 brainstorm, 다양한 뜻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라는 뜻입니다.

<http://gimp-brainstorm.blogspot.com/>

개발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2 김프 vs. 포토샵 Smackdown

그렇다면 '김프는 포토샵의 대안인가?' 또는 '김프가 포토샵 보다 뛰어난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제목은 거창하게 적었지만, 사실 저에게는 그렇게 방대한 그래픽 작업의 경험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교할만한, 퍼포먼스라든가 어떤 뚜렷한 기술적 차이점에 대해 비교할만한 경험이 없어서 사실 무리입니다.

저는 이 글을 쓰는 현재, 리눅스와 MS 윈도우를 왔다갔다하면서 쓴지가 약 17년 가량 되었고, 리눅스로 완전히 안착하여 MS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은지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¹⁵ 최소한 4년간은 포토샵을 전혀 사용해 보지 못해서, 현재 포토샵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¹⁶

약 4년간의 포토샵 경험이라고는, 유튜브에 포토샵 관련 동영상이 떴을 때, 그 설명을 보면서 김프에서 따라해보며, 동일한 작업결과물을 가져오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끔 김프 관련 동영상을 보면 “Gimp tutorial could work on photoshop too :p (김프 설명서는 포토샵에서도 작동될거야 😊)” 라는 문구를 자주 접하곤 합니다. 즉, 포토샵에서 되는 작업은 김프에서도 되고, 김프에서 되는 작업은 포토샵에서도 된다는 정도의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느 것이 더 빠르게 또는 더 정확하게, 더 쉽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 경험에 의한다면,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프를 사용해서 디카로 찍은 사진 보정 작업, 홈페이지 배너 만들기, 홈페이지를 꾸미기 위한 추상화 작업, gif 애니메이션 제작, 그리고, 사람들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15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범위에서 유일하게 안되던, 한국에서만 안되던 인터넷 뱅킹도 얼마전 부터 몇몇 은행에서 가능하게 되어 이제는 완전히 MS 윈도우와는 작별입니다.

16 물론 포토샵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사진 합성¹⁷ 정도의 작업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든가 어렵다든가 하는 것은 느껴본적이 없습니다.

가령 사진 보정 작업은 커브를 만진다든가 색감을 그래프로 조정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아닌, 앞서 말씀드린 김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진 보정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하고 있고, 홈페이지 배너 같은 홈페이지 꾸미기 작업은 예전에 구입한 태블릿으로 그냥 그림 그리듯이 쓱쓱 그려냅니다(저의 그림 실력은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gif 애니메이션은 김프에서 제공하는 GAP 툴¹⁸을 통해 쉽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합성이야, 그야말로 노력이 필요하지만 김프에서 제공해주는 플러그인으로 생각보다는 쉽게 처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프에서 제공하는 도구나 플러그인만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붓이라든가 커브, 그래프 등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포토샵을 잠시 접어두고 김프를 사용해도 좋은 이유를 적다보니,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인 사용자라면, 비싼 돈을 들이거나 아니면 굳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 포토샵을 애써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부담없이 포토샵과 같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김프를 사용하는게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게 어떨까 하고 추천해 봅니다. '김프 코리아' 회원 분들 중에는 직업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디자인 관련 학생들도 있습니다. 주문된 디자인을 김프로 직접 만드시거나 입사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김프로 직접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프 코리아' 회원 분들 중 디자인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직접 공유해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3.3 프리 소프트웨어로서의 김프

프리 소프트웨어로서의 김프를 놓고 본다면, 흔히 F/OSS를 '진보'라는 측면에 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의 상황을 보자면 'F' /OSS에서 'F'를 빼고, 'OSS'만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¹⁹ 즉, 새로운 이윤창출이라는 측면으로 많이

17 여기서 야한 사진을 떠올리신다면 하핫. 할 말 없습니다. 😏

18 김프에서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만들기 도구

19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F라는걸 넣더라도 상업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어떤 ‘진보’ 라는 측면을 이야기 하기 보다, ‘새로운 수익구조’ 또는 ‘틈새 시장’ 정도의 논리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처음 출발은 ‘진보’ 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윤을 중요시 하는 시스템 속에 속하면서 그 내용이 변질되었거나, 최소한 이 시스템이 깨어지지 않는 한은 상업적, 이윤 추구라는 측면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게 지금 현실이지 않은가 합니다.

이 부분은 김프라는 주제로 다루기에는 그 범위가 넘어서는 측면이라 이쯤에서 정리할까 합니다.



〈김프 작업 결과물〉

마지막으로 다루는 이 주제는 자칫 전체 주제가 무거워질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라 넣을까 망설이다가 한 번 넣어봤습니다. 짧은 제 소견에 대해 많은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성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4. 끝맺으며

이번 글을 적으면서 나름대로 어렵פות하게 가지고 있던 F/OSS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였었고, 김프에 대해 관련된 정보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검토해 주신 분들이 김프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넣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을 넣지 못한 핑계를 굳이 대자면, 김프에 대한 - 포토샵과 비교만 하자고 해도 - 기술적인 부분들이 너무 광범위하여 엄청난 분량의 글을 써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디자인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미약한 실력밖에 없어 참으로 힘든 부분이라 감히 글을 적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단지, 처음 이 글을 쓸 때, 김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위주로 하자는 계획이었다는 위로로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김프에 대한 좀더 많은 내용들은 김프 코리아(<http://gimp.kr>) 에 한 번 방문하셔서 글들을 한 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프를 처음 설치하셨다면, 포토샵의 작업환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김프 메뉴의 배치라든가 도구의 배치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http://docs.gimp.org/ko/>를 보시면 김프의 환경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상황이 아니라 노하우를 정리한 한글문서²⁰가 부족하며 영어라는 언어적 장벽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계속되는 발걸음으로, 긴 호흡 가다듬고, 최소한 김프라는 것에 대해서는 '김프 코리아' 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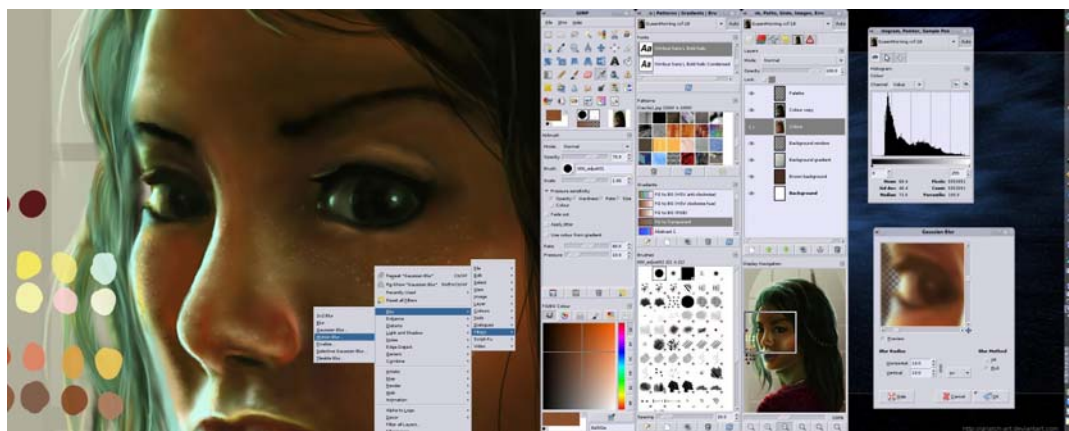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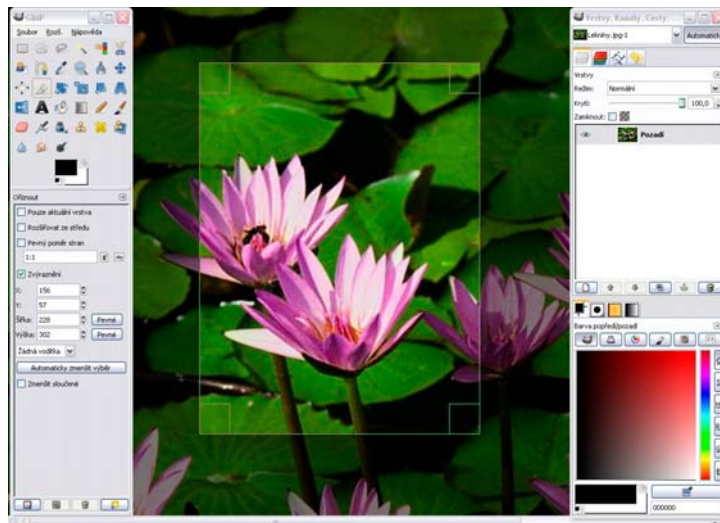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초안 원고를 검토하고, 조언을 아끼시지 않은 '김프 코리아' 회원님들과 '우분투 채널', '그놈 채널', '19금 채널' 분들 그리고, 원고를 읽고 자신의 느낌을 말해준 고향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 기본적인 것들, 메뉴얼, 김프 자체의 메뉴 등은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저의 글재주가 부족하여 미처 신지 못함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읽으신 분들!

“복 받으실겁니다!” 😊



(2011년 초순 경 출시 될 김프 2.8의 모습, <http://gimfusers.com>)

우분투²¹ 한국 (ubuntu korea)

강분도 우분투 한국 의회 대표 코분투 개발팀 오너

편집자 주 : 우분투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Windows, 애플의 Mac OS X처럼 컴퓨터를 가동시키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체제입니다. 여타의 상업용 운영체제와 달리 우분투는 자유소프트웨어인 그누/리눅스(GNU/Linux)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분투는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 및 재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인 그누/리눅스는 서로 다른 많은 배포판이 있는데, 우분투는 "리눅스계의 MS"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누/리눅스 운영체제입니다. 그누/리눅스가 일반적인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좀 불편했다면, 우분투는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과 모양새를 통해 사용자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우분투를 설치하신다면 다른 운영체제와 마찬가지로 각종 프로그램, 업데이트, 기술지원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개발자들이 우분투가 여타 상용 운영체제에 뒤지지 않도록 많은 개발 및 개선 작업을 하고 있으며 본 글에서 소개되고 있는 우분투 코리아 역시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1 우분투ubuntu는 남아프리카 줄루족 반투어로 외부 손님을 접대하더라도 그것을 베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대가없는 사랑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분투를 통해 우리가 컴퓨터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작업들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들이 그누/리눅스 용으로 이미 개발되어있고, 게임이나 메신저 역시도 우분투에서 구동할 수 있는 종류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서작업을 위한 워드프로세서와 그래픽 작업을 위한 툴들 또한 나와있으며 계속 발전중입니다. 그간 Active X로 사용자의 컴퓨터에 과부하를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우분투 등 다른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은행도 생겼습니다. 현재는 Windows가 컴퓨터 사용의 필수사항처럼 되어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운영체제를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 환경과 이용 목적에 맞게 설치하고 운용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1. 한국에서의 우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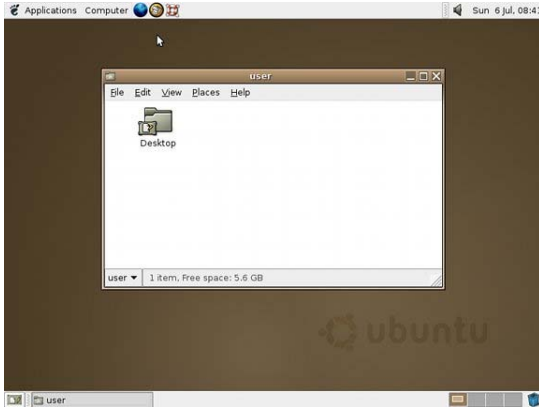
1) 시작과 도입

2004년 10월 20일 판(버전4.10)을 통해 시작된 우분투 배포판은 불안정하여 국내 사용자들은 설치 후 지우는 정도였으며 그나마 사용자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05년 4월판인 효리(버전 5.04)부터 인데 버전 코드명이 이효리와 같아 효리 특수성을 탄 이유와 국내 노트북 사용자의 증가로 타 OS 사용 욕구에 따른 대학생 유저 증가가 시작 되었는데 이때 특이한 사건으로 IT 전공 또는 개발자가 아닌 순수 리눅스 OS 사용자들(일반유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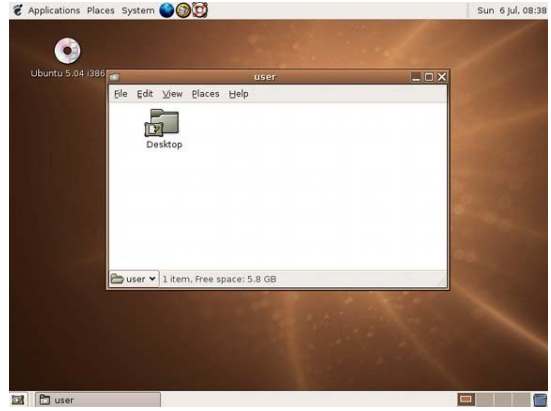


<우분투 코리아 로고>

<데스크탑 그림으로 보는 우분투 배포판 역사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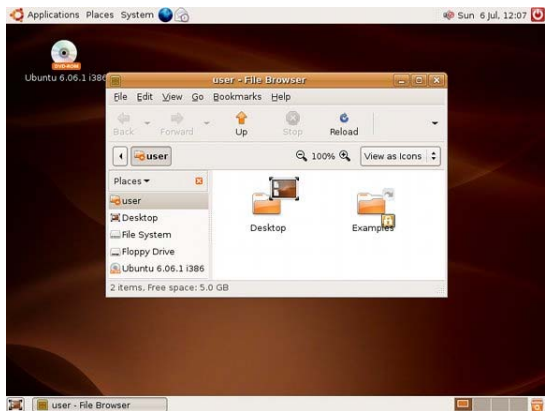
4.10 Warty Warthog (워티 월트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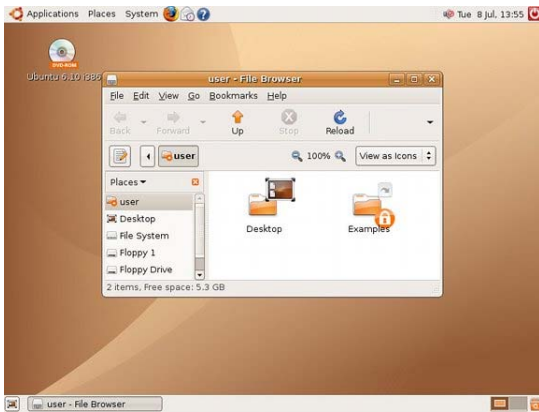
5.04 Hoary Hedgehog (호리 헛지호그)



5.10 Breezy Badger (브리지 배저)



6.06 Dapper Drake LTS (대퍼 드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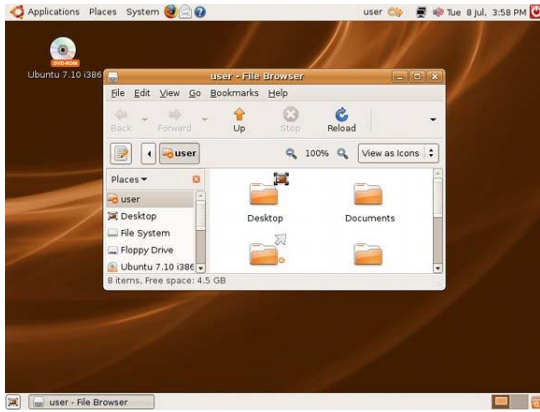


6.10 Edgy Eft (엣지 에프트)



7.04 Feisty Fawn (페이스티 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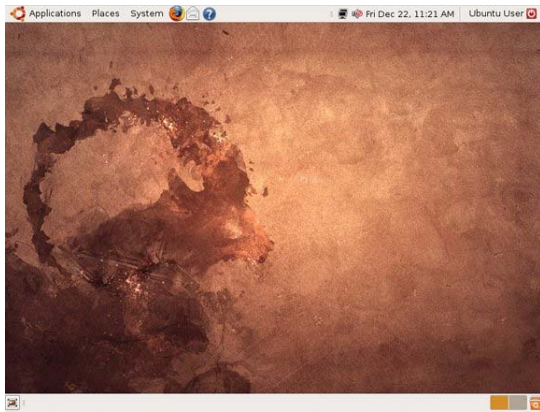
22 <http://www.ubuntu.or.kr/viewtopic.php?p=59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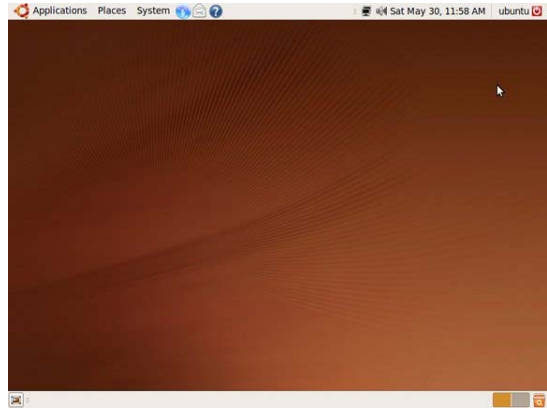
7.10 Gutsy Gibbon (것시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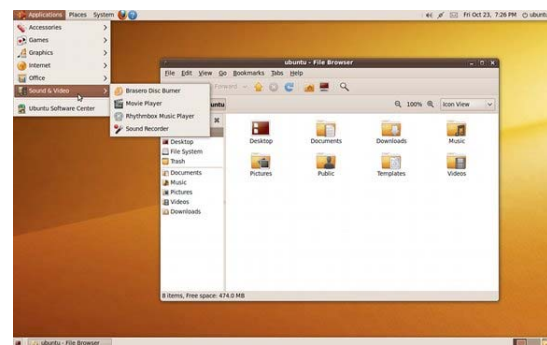
8.04 Hardy Heron LTS (하디 헤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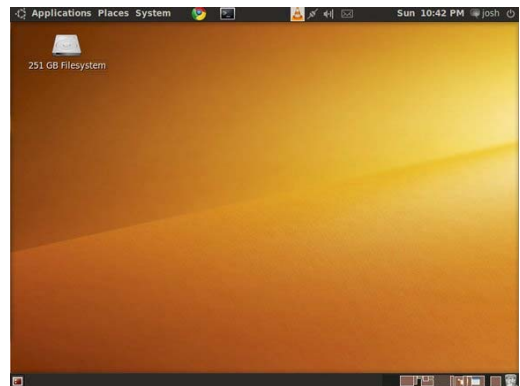
8.10 Intrepid Ibex (인트레피드 아이벡스)



9.04 Jaunty Jackalope (잔티 자카롭)



9.10 Karmic Koala (칼믹 코알라)



10.04 Lucid Lynx LTS (루시드 링스)

2006년2월 우분투의 창설자인 마크 셔틀워스(Mark Richard Shuttleworth)가 우분투 홍보를 위한 아시아 투어 중에 한국에도 오게 됩니다. 마크 셔틀워스 내한 계기로 국내 우분투 사용자를 위한 커뮤니티가 더욱 활기찬 활동에 들어 갑니다. 마크 셔틀워스가 내한한 2006년2월 까지가 국내 우분투 시작과 도입 시기입니다.



〈마크 셔틀워스 내한 당시〉

2) 춘추시대

런치패드를 중심으로 한 코리안 로코팀과 번역팀 그리고 HANIRC의 #ubuntu 채널 그리고 <http://ubuntu.or.kr>을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 포럼이 각각의 리더를 중심으로 나누어져 활동하던 시기 인데 2006년부터 2008년 중순까지의 시기 였습니다. 이때 코리아팀 & 번역팀은 런치패드(<https://launchpad.net>)를 통한 번역 작업을 하였고 HANIRC의 우분투 채널(#ubuntu)은 차윤석님을 중심으로 모임과 세미나를 프리세미나와 공동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3) 통일기

분산되어 있는 각 국내 우분투 자원의 통일성이 논의는 되었으나 각 리더의 의견 차이로 무산되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지내던 2007년 여름 저의 우분투 사용과 활동이 시작 되었습니다. 질문을 위해 찾은 HANIRC 의 우분투 방(#ubuntu)에서의 교류와 이후 07년말 시작한 우분투 책의 집필 문제로 모인 12명의 우분투 사용자가 한국 우분투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기 시작하여 각각의 자원에서 열심히 일해 관리 권한 및 유저 지지도를 통하여 한국 우분투는 각 분리된 영역이 통일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8년 여름 한국에서는 최초로 우분투만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고 일년에 두번 출시되는 출시 모임 (파티)을 통하여 온라인 과 오프라인에서의 중심과 결속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기는 2008년 중순부터 2009년 까지 입니다.



〈사진 : 2009년 우분투 세미나 세미나〉

4) 외부 사업 시작

올해 2010년 들어 한국 사용자 편의를 최대화한 코분투 CD의 제작과 배포 그리고 코분투 개발 사무실을 통하여 2010년부터는 외부로 우분투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분투 사용자 확대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확대를 위한 공개 강좌 발표 등 타 단체와의 연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 코분투 CD〉

2.우분투 한국 상황

1) 우분투 커뮤니티의 중심 (포럼 <http://ubuntu.or.kr>)

우분투 정신은 타의에 대한 배려, 인류애를 이야기 하듯이 우분투 한국사용자 모임의 기본 정신은 “거져 받았으니 거져 주라” 의 원칙하에 친절한 환영과 자세한 설명 댓글을 통하여 서로 우분터스(우분투회원)²³로 나아감을 중심으로 합니다. “검색해보세요” “10번 해보세요” 등의 무책임한 답변을 자제하고 그림을 포함하는 친절한 답변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 갈 것입니다. 즉 사용자 중심의 포럼 운영이 제일 원칙입니다.

2) 번역팀 이야기 (<https://launchpad.net/~ubuntu-l10n-ko>)

런치패드의 번역 시스템은 누구나 번역팀 멤버²⁴가 되면 우분투 번역에 참여 할 수 있으며 고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끔 잘못된 번역을 야기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많은 번역 참여가 번역의 질을 높여 줄 것임을 믿고 번역의 보편성을 위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23 우분테로 되기 : <http://ubuntu.or.kr/wiki/doku.php/launchpad>

24 번역팀 멤버되기 : <http://ubuntu.or.kr/wiki/doku.php/l10n:ubuntul10nkorules>

3) 우분투 CD & 코분투 CD 배포

우분투한국로코팀은 인증된 지역로컬팀이기에 우분투가 년 2회 출시 될때 마다 항공으로 우분투 CD를 500여장 받고 있습니다. 9.10 때(2009년10월)는 컴퓨터 대리점인 늑대와 여우 지역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를 시도 하여 보았으나 보내준 CD가 남는 상태여서 10.04 부터는 다시 모임을 또는 우편을 통하여 배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우분투 CD배포의 의미는 우분투 유저 확대를 위한 것으로 실질인 효과가 없기에 올해 처음 한국 환경에 최적화한 코분투 10.04LTS를 네이버와 진보넷의 도움으로 1,600개 제작하여 무료 배송으로 900여개를 배송하여 준 상태 입니다²⁵. 코분투는 리눅스 OS를 접해보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제작 되었으며 상암동 공개SW역량프라자에서 개발 사무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²⁶

4) 오프라인 모임

월 정기 소 세미나를 통하여 회원간 오프라인 교류를 하고 있으나 서울 경기외의 타 지역 유저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로운 학습과 정보 교환을 통하여 온라인의 한계를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세미나에 참석자 50%는 IT와 무관한 일반 사용자 입니다. 이점은 한국내에서의 우분투 활동에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또한 코분투 개발 사무실을 우분투 유저의 만남과 사용 문제점 해결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 오프라인 모임>

5) 리눅스로서의 한계

현재 리눅스 OS는 국내 인터넷 환경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ActiveX를 이용하는 국

25 신청 링크 : <http://ubuntu.or.kr/viewtopic.php?f=2&t=12251>

26 참고 : <http://ubuntu.or.kr/viewtopic.php?f=2&t=12271>

내 온라인 게임에서 동작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등의 새로운 스마트폰 의 사용자 증가와 더불어 국내 웹과 온라인 게임은 변화되어 가며 이를 통하여 리눅스의 원활한 사용도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은행의 리눅스에서의 온라인뱅킹 가능은 이러한 추세를 이야기 해주고 있으나 국내 정부의 보안 지침인 키보드 보안등의 규제가 MS OS 외의 프로그램에는 허용되지 않는 현실이니 이 또한 앞으로 개선을 위한 투쟁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3.한국에서 우분투의 전망

1) 서버로서의 우분투

한국은 세계에서 단일 배포판으로는 우분투 서버 사용률이 제일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리눅스 서버 사용률 통계는 레드햇 계열의 CentOS사용이 높으나 소규모 사업장과 개인 서버까지 본다면 우분투 서버의 국내 사용률 또한 CentOS를 넘는 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화력 발전소에서의 우분투 서버의 도입과 그에 따른 개별 컴퓨터에 우분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기업이 도입하기에 문제점은 OS에 따른 책임 주체가 명확히 없다는 것인데 이는 추후 한국 내에서 우분투 사업을 해나갈 기업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으로서의 우분투

우분투(리눅스)에서의 개발 환경 구축은 너무나 다양하고 쉽게 구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몇 개의 명령어 또는 클릭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강력한 에디터(vi, emacs)등 외의 지니(geany), 안주타(Anjuta) 등등의 통합 개발 에디터는 개발자를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3) 임베디드 및 산업용 기기의 OS로서의 우분투

가볍고 이식이 자유로운 리눅스 적 장점과 뛰어난 개발 환경 구축이 가능한 우분투는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에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며 최근들어 우분투의 안정성과 산업용 보드의 성능 향상에 따라 자체에 우분투를 설치하여 출시하는 기기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분투의 뛰어난 주변기기 인식 기능 때문이며 터치패드, 지문 인식 등의 필요한 기기에 OS 설치 만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이 제공 될 것입니다.

4) 학습 용 OS로서의 우분투

올해 가을 학기부터 2개 중/고등학교 컴퓨터 실에 우분투(코분투)만을 설치 하여 새로운 OS와 오픈소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분투는 충분히 OS로 사용 할만 하며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교육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5) 업무용 OS로서의 우분투

우분투 설치 기본으로 설치되는 오픈오피스는 기업 사무환경에 필요한 OA를 가능케 해주며 타 MS OA와의 호환은 앞으로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한대의 컴만 MS OS 설치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 소프트웨어적 비용 절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의 불 필요와 소프트웨어 고장등을 적게 발생시키는 우분투의 장점으로 더욱 업무 효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6) 생각에 변화를 주는 소프트웨어로의 우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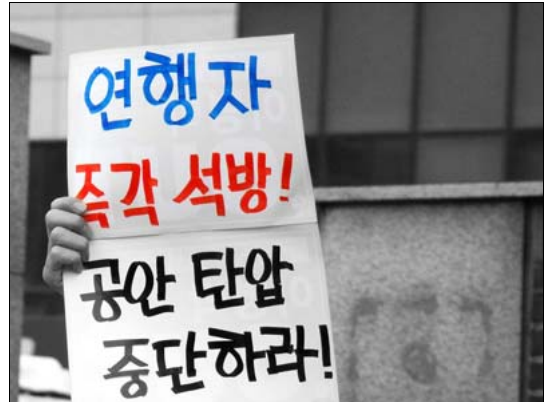
자유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소프트웨어의 대한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 공유의 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아는 것을 공유할 때 미래가 희망적으로 열린다는 생각을 주어 우리를 “타인에 대한 배려(우분투 정신)” 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분투의 존재 이유인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인 것입니다.

4.마치며

지금까지 우분투 한국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저는 이제 우분투 추종자(빠)라는 것입니다. 단점이 잘 안보이고 장점만 보이는 상태라 객관성을 잃은 것입니다. 그냥 현재 우분투를 위해 노력하는 한명의 유저로 보고 ” 그러려니...” 해주기를 청합니다.

우분투의 사용은 중요합니다. 우분투를 사용하는 것이 오픈소스의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많을 때 더욱 멋진 프로그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분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오픈소스의 사용자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리눅스(우분투)도 사용자 시대로 나아가야 하며 이미 우분투를 통하여 오픈소스는 국내에서 사용자 시대를 나아가고 있습니다.²⁷

27 2010년 우분투 한국사용자모임 활동계획 : <http://ubuntu.or.kr/viewtopic.php?f=2&t=9499>



section 010. 기고 글 모음		031
일상적인 사찰의 매카니즘과 감시국가	장여경	032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036
사찰공화국과 전자주민증 - 주민번호의 재앙이 주민증으로	장여경	043
스마트폰 감청과 빅브라더	장여경	047
불법다운로드를 권장합니다	laron	050
해적당 소개	오병일	055

일상적인 사찰의 메카니즘과 감시국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사찰과 블랙리스트,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이다. 이 두 단어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찰'은, 단순히 조사하여 살핀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가나 기업과 같은 권력기구가 자신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개인들의 '사상적 동태'를 은밀히 조사하고 처리한다는 말이다. 실제 그런 일을 담당하였던 경찰의 한 직분을 의미하기도 하였다(사상경찰). '블랙리스트'는 그러한 사찰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시작점이기도 하다.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이후 동태를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최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진앙이 정치권으로부터 밀려오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과 국가정보원,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 주요 권력기관이 이전 정부의 집권 세력 뿐 아니라, 심지어 집권여당 내 경쟁 세력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인과 평론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논란은 한 방송사의 돌출적인 행태가 아니라 현 정부의 암묵적인 권력 의지가 발현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찰에 대한 검

찰의 수사 발표가 어떻게 끝나건 사태가 이쯤 이르면, 이명박 정부는 교체 이후에도 시민들의 뇌리 속에 '사찰 정부'로 기억되기에 충분할 듯 하다. 김영삼 정부가 미림팀의 '도청'과 함께 기억되듯.

그러나 지금의 사찰 문제는 정치인에 대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많은 사회단체가 감시당하고 시련을 겪고 있지만 문제가 그것 뿐만은 아니다. 시민사회 명망가나 전문가들의 발언이 예의 주시당하고 때로는 명예훼손이라는 보복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진정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다.

몇년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찰 논란의 출발이었던 김종익씨 사건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제가 붙었지만, 그가 민간인 사찰의 유일한 당사자는 아니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지난 14일 「최근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 양상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라는 제하의 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저강도 공포의 일상화', '저강도·맞춤형 공안탄압'이라는 단어였다. 이명박 정부의 공안 통치를 지켜보며 많은 이들이 '과거 회귀'를 말했다. 토건국가식 경기부양책이나 경찰의 고문 수사에서, 박통이나 전통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간에 유사점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안 탄압은, 매우 치밀하고 집요하게, 그리고 치사하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촛불, 광우병 괴담, 광고지면 불매운동, 미네르바, 회피 연아, 천안함 괴담, 그리고 김종익씨의 쥐코 영상까지. 정부가 정색하고 덤벼들기에는 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일들이지만, 모두가 정색하고 벌어진 것이다. 어떤 일들은 어이가 없어 실소가 나왔지만, 형사처벌 앞에서는 아무도 웃을 수 없다. 과거에도 '막걸리 보안법'이나 일반 시민이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이 횡행하기도 하였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일반 시민 다수를 아우른 적은 없었을 것이다.

일반 시민에 대한 공안 탄압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인터넷 사찰이다. 인터넷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시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표현 수단이고, 그만큼 일반 시민에게 주류 매체 못지 않은 권력이 부여되었지만, 일반 시민에 대한 권력의 감시와 탄압도 그만큼의 비중을 두고 이루어지기 시작한 모양이다. 인터넷 시대 초기에는 표현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이제 권력이 여론을 유린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술낙관주의가 지배

적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다.

경찰과 정부에는 감시 맞춤형 검색엔진과 전문업체가 있다. 경찰이 실시간 인터넷순찰 시스템, 즉 '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을 발주하여 인터넷을 감시한다는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된 것이 지난 해 9월이다. 최근에는 세계일보에 의해 정부와 대기업이 전문업체를 통해 4만2000개에 달하는 인터넷 게시판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감시의 결과는 무엇일까? 2008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문화부에 대해서만 밝힌 사실만 해도, 하루 두 차례씩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청와대·대검찰청·경찰청·방통위 등 42개 정부부처가 공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공유된 누리꾼의 아이디 규모가 7~800개에 이른다고 했다. 지금은 더 될 것이다. 김종익씨의 경우 그 피해가 극적이고 구체적이어서 특히 화제가 되었지만, 그 못지 않은 피해가 또 있을 것이다.

좀더 자세한 인터넷 사찰의 메카니즘은 이러할 것이다. 검색엔진의 힘을 빌어 '쥐코' 등 문제가 되는 검색어를 포함한 게시물을 발견한다. 게시물을 발견하면 당국이 그 작성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기란 식은 죽 먹기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수사기관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구하는 데 영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통신자료를 손쉽게 요구할 수 있고 인터넷 업체가 제공하는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집계하여 발표하는 통계만으로도 인터넷 통신자료 제공의 규모가 2008년 119,280건, 2009년 143,179건이다. 이 때문에 얼마 전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추적이 시작되는 시점은, 글쓴이가 그들이 염두에 두는 검색어를 포함하는 글을 올리는 순간부터이다. 인터넷 사찰이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의 인터넷 생활 그 자체가 사찰의 대상이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올린 게시판, 카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모든 글이 사찰된다. 이것이 인터넷 시대 그들이 당신의 사상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인터넷 생활을 빼놓고 사회 생활을 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 바야흐로 상시 감시사회의 비극이 이렇게 도래하게 되었다.

이 비극은 분명 통신 수단의 발달이 가져온 것이다. 기록매체의 발달은 우리의 통신 내용을 모두 기록하게 하였고, 유비쿼터스 시대는 우리가 시도때도 없이 접속하여 통신하게 하였다. 즉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모든 일상 생활이 통신상에 남는다. 국가권력은 이런 상

황을 십분 활용하여 감시능력을 확장한다. 미국에서도 국토안보부, 국방부 등 정부기관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찰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한국의 상황이 더욱 비극적인 것은 뭐니뭐니 해도 소셜네트워킹의 시대에 일반 시민의 배후를 철저히 캐고 싶어하는 사찰 정부를 만났다는 것이겠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이 사태의 주요 배후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누군가를 사찰하고 싶어도, 인터넷 업체가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안 가지고 있으면 그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이것이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국민이 출생할 때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평생 관리하는데,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는 글을 쓸 때마다 이 번호가 함께 보관된다. 인터넷 업체는 게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이 정보를 6개월간 보관하도록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앞서가는 인터넷 사찰 국가를 탄생시킨 셈이다.

행정안전부가 밝힌대로 2012년부터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전반으로 확장될 것이다. 병원, 은행, 학교, 그 어디건 내가 가는 곳마다 전자주민증 인식을 요구받을 것이고, 그렇게 인식된 나의 흔적은 나의 모든 것을 한 눈에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는지까지. 이렇게 인식된 나의 정보는 지금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손쉽게 수사기관에 제공될 것이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전자감시국가의 완성체가 될 모양이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사찰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 미디어스 2010.7.26일자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93>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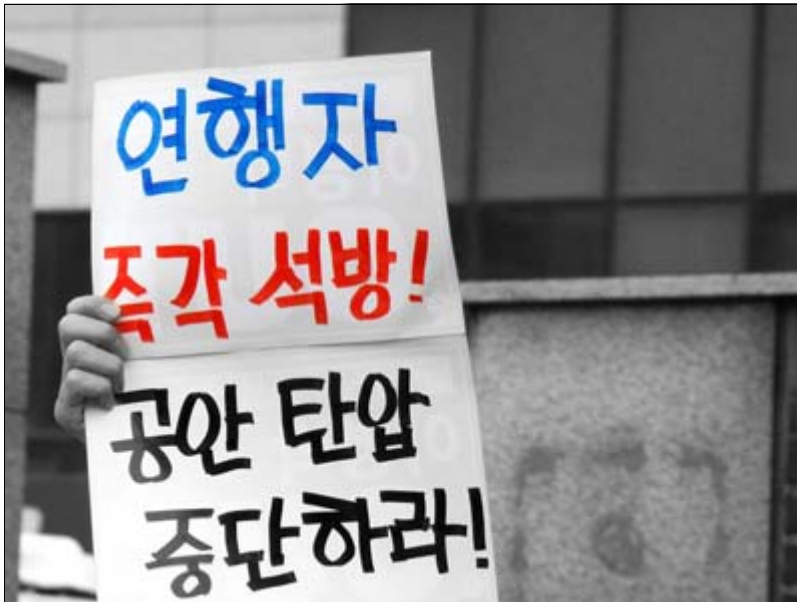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안통치의 양상은 과거 정부와 다소 다르다. 과거에는 반공주의 논리를 이용해서 간첩사건이나 시국사건을 만들어 사회에 공포감을 퍼뜨렸다면, 지금은 큰 사건을 만들지 않아도 일상에서 끊임없이 광범위하게 시민들을 감시·처벌하고 있다.

촛불을 잠재우기 위해서 1천5백여 명에 이르는 시민들을 연행하고,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김제동, 윤도현, 김미화, 김이태, 김동일, 박원순)을 속아 내는가 하면, 뒤지거나(PD수첩, 이인규 등) 까불지 말라고 겁을(미네르바, 정연주, 황지우, 한명숙) 준다. 국

가보안법의 칼날을 되살려 지속적으로 진보세력(한국진보연대, 사노련, 범민련 등)을 통제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해 시민들을 감시하며 특하면 고소고발을 자행한다. 닥치는 대로 사건을 만드는 이명박식 통치 방식에 관해 혹자는 한마디로 “치사하다”고 평가를 하기도 한다.

이명박식 통치는 공공의 안녕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전통적인 ‘공안통치’의 모습을 띄면서도 잠재적 범죄를 예방·처벌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치안통치’의 양상도 보인다. 물론 잠재적 범죄는 현 정권에 거스르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일상화된 고강도 탄압

이명박 정권 통치는 ‘고강도-맞춤형 탄압’ 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전의 공안정국에서는 공안기관들이 진보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구금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정권은 국면의 전환을 꾀했다. 이에 대응하는 진보진영도 여기에 맞춰 대규모의 대책기구를 만들었고, 그것은 그 국면이 지나면 해소될 것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상화된 탄압은 이른바 ‘진보세력’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게 ‘현 정권에 대한 비판세력’까지 감시·처벌하고 있다.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시민들은 약 1천5백 명이었다. 그중에서 1천 명 가량이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그중 8백 명 가량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에 있다. 촛불집회에 단순 참가한 가벼운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까지 찾아가 근무 여부를 확인했다. ‘촛불자동차연합’ 회원들은 자동차를 갖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이들을 돕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았다. 이메일과 핸드폰 내역을 뒤지는 등 감시는 일상화되었다. 촛불집회 시민들에 대한 추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2년이 지난 지금도 경찰에 소환되는 일이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권에서는 정부 각 부처가 공안기관화 되어 버렸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정보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만이 아니라 문광부의 예술단체나 예술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과 해임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버티는 이들에 대한 과거 행적 뒤지기, 모욕주기, 징계와 해고, 고소·고발 등의 법적 조치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깡그리 동원되었다. 적용 법률도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만이 아니라 형법의 각 조항들(일반교통 방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선거법까지 적용했다. 성폭행 범죄조차도 공안을 위한 도구였으므로,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에다 화학적 거세까지 거침없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변화는 형사사건의 통계 결과들이 보여준다. 형사 기소사건(기소자: 2007년 109만4천/2008년121만7천/2009년131만7천)이 노무현 정권 때보다 8% 증가하였는데, 형사사건 중 무죄사건도 22.2%로 증가했다. 이는 주로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무작위로 체포하여 입건한 것의 결과이다. 법원이 보더라도 무리한 수사와 입건과 기소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또 구속영장 기각율을 보면, 노무현 정권 때 12%대였던 것이 현 정권에 들어와서는 2008년 24.5%, 2009년 25.4%로 배나 뛰었다. 구속영장청구를 남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압수수색도 2004년 53,000인 것에 비해 2008년 100,480 2009년 64,798로 배나 급증했다. 이는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 정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진행되었던 압수수색을 촛불시위 단순 참가자들에까지 무리하게 남발했던 결과이다. 사이버 쪽은 너무나 심각하다. 사이버명예훼손은 2008년 380건이던 것이 2009년 1~6월만 1667건에 이르렀다. 통신제한조치는 2008년 135건이었는데 2009년 1~6월만 117건에 이른다.

법질서 정치가 가져오는 경찰국가화

이명박 정부의 통치방식을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법치주의의 강화에서 유래한다. 원래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와 헌법 원리를 뜻하는 법치주의는 최근 위법행위에 대한 불관용, 질서위반에 대한 엄정단속,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공무방해 엄단, 집회시위와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주장하고, 구금형과 중형위주의 정책을 강조하는 ‘법질서 정치’의 레토릭으로 사용되고 있다(김한균, 2008).

이것이 법질서 ‘정치’인 까닭은 사회 위기의 원인을 정부의 정치경제정책이나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범죄자로 떠넘기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빈곤의 문제를 경찰과 형사법원과 교도소를 동원해 덮어버림으로써 사회정책을 형사정책으로 대체한다.” (바우만, 2004). 형사사법을 동원하는 추세가 강화될수록 권력남용은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법질서 정치는 위기상황을 구실삼아 수사기관과 대통령[행정부]의 강력한 권력행사를 정당화 한다. 오늘날 경찰국가는 (경찰청이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제도로서 ‘경찰청’의 활동이 아닌, 실질적 ‘경찰작용’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다. 또한 법치국가와 대립하는 의미의 절대주의적 경찰국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국가권력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경찰력의 강화가 이루어진다(김인회, 2009).

이명박 정권 들어 유난히 준법이나 법질서 회복이 강조되고, 심지어는 아동 성폭력 사건과 같은 범죄들을 악용하여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에 대한 엄벌책들이 인권적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도입(전자발찌의 확대 적용, 화학적 거세 도입,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되고 있다. 이런 법질서 정치는 보수언론들이 사회여론을 조장하고, 보다 더 강력한 엄벌책을 정권이 주문하는 것에 힘 받아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이제 공안과 치안의 구분은 의미 없어지게 되며, 아동성폭력 범죄자나 집회·시위 입건자는 동일선상에서 취급된다. 즉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배척하고 추방해도 된다는 ‘법질서 정치’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런 법질서 정치는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완성을 추구한다.

공포의 일상화, 감시의 내면화

오는 11월 중순에 서울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모습을 완성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 같다. 벌써부터 노숙인들을 거리에서 쓸어내기 위해 불법적 절차들을 동원하여 시설에 격리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10월 1일부터 한 달 보름동안 발효될 ‘G20 경호법’은 군대마저 동원해낼 수 있다. 공포의 일상화를 통한 표현의 자유 억압, 촘촘하고 치밀한 감시체제를 동원한 자기검열의 시스템을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G20을 활용할 것이다. 불심검문과 일제단속(수배자 일제검거든, 도시 미화를 위한 노숙인 정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추방 등)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강화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배세력이 얻는 것은 저항의 무력화이며, 불안한 대중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다. 지배세력들은 일상화된 고강도-맞춤형 통치로 공포를 일상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안국가의 등장은 사실 이전 정권에서부터 준비되어 왔다. 그럼에도 우리의 체감이 높은 이유는 ‘공안의 수요가 노골적으로 확대된’ 이명박 정부 들어 보다 수월하게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입법을 통해 신자유주의 경찰국가화를 완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권운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경찰국가화를 완성하려는 입법 활동에 대응하며, 대항 논리와 불복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널리 알려나가자.

이명박 정권 들어 경찰력의 과도한 행사가 우리 삶 곳곳에 피부로 체감된다. 경찰들이 거리에서 강제로 불심검문을 하고, 양천경찰서에서 피의자에게 고문을 진행한 사건은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니다. 더 나아가 경찰의 권한은 강화하고 경찰의 통제력은 약화시키려는 경직법 개정,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이메일 압수수색, 집회시위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찰국가를 법률로서 완성하려는 움직임에 균열을 내며 대응을 해야 한다.

이계수, 오병두 님은 민주법학 38호 「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에서 “친기업적 경찰국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치’, ‘법과 질서’의 수사 뒤에 숨은 정치적 의도를 폭로하고 각종 입법과 법집행정책의 배후에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드러내며 개별적

인 법률 수단들이 내포하는 부정적 영향의 징후들을 밝혀내는 이론적인 작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대항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자-법률가-인권운동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국회에서의 입법 대응 못지않게 시민들의 경찰국가화에 대한 저항도 필요하다. 가령,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저항하고, 지역사회에서 공안기구 감시운동을 펼치는 운동이 그러한 예에 해당할 수 있겠다.

둘째, 더 많은 대중과 더 많은 ‘자유’ 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자유’ 의 의미가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자유’ 의 의미로만 수렴되고, 자유권 운동이 탈정치와 싸우느라 힘들었던 때를 잊을 수 없다(그러면서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지 못했다). 그 때는 ‘자유’ 의 의미가 가장 유린되던 시절이었다. 다행히 오늘날 우리는 고전적 ‘자유’ 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상황으로 돌아왔다.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민의 권리, 시민의 저항권,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범죄수사와 인권 등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문제로 ‘자유’ 이슈를 확장하자.

집회시위는 경찰에 의해 허가·관리 되는 것이 아닌 거리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로, 반감시의 권리로서 정보인권운동의 확장으로, 공안기구는 철저한 민중적인 인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통해 더 많은 우리의 자유를 만들자.

셋째,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는 사회적 ‘연대’ 를 확장하자.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노숙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골적인 단속이 가속화되고 있다. 거리 노숙인을 거리에서 청소하듯 시설로 내몰고 심지어 경찰까지 나서서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고 있다. 이렇듯 노골적인 배제정책이 횡행하는 가운데 노숙인, 이주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키고 옹호할지, 인권운동이 그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끊임없이 피해자를 앞세워 형벌강화 논리를 앞세우는 정책에서 실재로 배제된 사람은 누구인가를 반문하며,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일시적으로 조성되는 공안정국은 없다. 공포의 일상화, 감시의 내면화로 치닫는 이명박식 법치주의 통치는 고강도-맞춤형으로,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근간들을 부정하며 경찰국가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인권운동은 일상적이고 전문적인 체계의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법질서 정치로 인해서 빼앗긴 우리의 자유를 되찾는 일, 내면화된 감시와 공포를 털어버리고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일, 형사적인 엄벌책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이 정책들의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저항을 조직하는 일은 이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의 우선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탄압 문제를 넘어서서 때로는 크고 넓게, 때로는 멀리 보며 깊게 접근하자.

〈참고문헌〉

김인회. 2009. “다시 검찰개혁을 생각한다” . 민변시론(2009.11/12, Vol.85).

김한균. 2008. “법질서정치와 형사사법의 왜곡”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제37호 (2008. 9).

오병두. 2010. “정보경찰의 역사와 현재” . 〈공안기구의 과거와 현재〉 연속강연회(2010.2.2).

이계수. 2001.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1 심포지움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2001. 11. 24).

이계수·오병두. 2008. “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 비판과 대응” . 〈민주법학〉 38호 (2008.12.1).

지그문트 바우만. 2004. 『쓰레기가 되는 삶들 -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 새물결. 2008.

* [인권오름] 제213호에 공동기고한 글입니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1515>

사찰공화국과 전자주민증

- 주민번호의 재앙이 주민증으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훗날 이 정부는 '사찰공화국'으로 기억될 것이다. 시민들은 김종익 씨나 여당 소장파 의원들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사찰을 두드러지게 기억하겠지만,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정부에 비판적 의견을 게시한 네티즌들에 대한 사찰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얼마 전에는 방송사 뉴스게시판에 천안함 사건 관련 댓글을 올렸다가 경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은 네티즌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지원한 이번 헌법소원에서 우리는 사찰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이다.

한 국에서는 공공이나 민간 어느 영역에서건 주민번호를 알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주소와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물론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인터넷 이용 기록까지. 지난해 12월 경찰은 전교조 교사들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민주노동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터넷 투표기록을 열람하기도 했다. 특히 주민번호는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요구하고 수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 옥션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주민번호만 1863만 명 분이다. 유출된 주민번호를 입수하면 누군가의 뒷조사가 어렵지도 않은 세상이다.

이 재앙은 주민등록제도의 태생 시점에서부터 예고되었는지도 모르겠다. 1962년 박정희 군사정권은 주민등록법을 제정하면서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한다는 조항으로 통제와 감시 목적을 분명히 했다.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문구는 1997년 12월에야 삽입된 것이다.

1997년 12월 그 무렵 사상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를 실현한 김대중 정부가 생각한다. 그 이후로부터 10년간 우리는 왜 주민등록제도를 손보지 못했을까? 아마도 주민번호를 통한 신원 확인 관행이 우리의 일상 생활을 너무나 오랫동안 지배해 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때마침 확산된 정보화로 인하여 원격으로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도 커졌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을 출생시점부터 사망시점까지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식별번호의 존재가 정부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국가권력의 속성이다.

개혁 정부 10년과 전자주민증

국가권력의 속성에서 크게 자유롭지 않았을 지난 10년간의 개혁 정부가 그래도 주저한 것이 있다면 전자주민증의 도입이었다. 나는 김대중 정부의 시작을 "전자주민증 사업 중단"과 함께 기억하고, 이 지점에서 다른 권위주의 정부들과 개혁 정부를 구분할 수 있다.

1997년 12월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여 운전면허증 등 다른 증명과 통합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이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반대 여론이 인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일었다. 이들과 같은 이유에서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침내 이 사업에 대한 중단이

선언되었다. 2006년 행정자치부는 삼성SDS 컨소시엄과 함께 다시 한번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했었지만, 역시 반대 여론에 밀려 중단되고 말았다.

1997년 전자주민증의 핵심적인 문제는 '다목적성'이었다. 한장의 카드가 주민증도 되고 여권도 되고 운전면허증도 되고 건강보험증도 된다는 말은, 그 카드 주인의 주민등록 정보와 여권정보와 운전면허정보와 건강정보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매우 높아졌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 대한 모든 사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전자주민증은 첨단감시사회로 진입하는 입구로 여겨졌다.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적 통제가 의심스러웠을 당시, 감시사회는 더욱 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지금 다시 전자주민증이 도입된다면 그때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찰공화국 완성할 전자주민증

그러한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명박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기치를 높이 들었다. 지난 7월 8일 행정안전부는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 전자주민증의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면 전자주민증의 형태가 '스마트카드'라 불리는 IC카드라는 것이고, 카드에 직접 모든 정보를 수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정보에 접속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다목적성은 변함이 없다. IC카드는 다목적성을 위한 선택이다.

IC칩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리더기를 통해 복제되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될 것이다. 앞으로는 수많은 행정이나 민간 서비스에서 주민증의 전자칩 인식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것도 볼 보듯 뻔하다. 그러나 정보주체는 그것을 자기 의사대로 통제하기도 어렵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전자칩으로 인식되는 모든 장소는, 나의 모든 행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록이 될 것이다. 온라인의 주민번호처럼, 오프라인에서는 전자주민증이 나의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필요성으로 위변조 방지라는 이유를 들이댄다. 하지만 위변조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국가신분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주민등록번호가 남발되었기에

그에 대한 도용과 유출이 많은 것처럼, 주민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위변조 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이제야 정부가 민간의 사용을 다소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습하려 하지만, 이미 전 국민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뒤이다. 전자주민증도 같은 전철을 밟으려는 것인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전자신분증이 등장하면 그에 대한 위변조 욕구와 암시장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주민증에 대한 수요부터 줄여야 한다.

주민증 수요부터 줄여야

물론 국가는 신분증 형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꼭 IC카드여야 할 이유도 없다. 적어도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은 업계이다. 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카드 신분증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우려가 업계의 이해와 교환될 수 있는 것일까? 행정안전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 부처일까?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정부가 국민들 몰래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5월 전자주민증을 염두에 두면서도 모호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가 법제처의 지적을 받고 7월 재입법예고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내용도 과정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온 국민으로 하여금 스마트카드를 지참하고 다니도록 하겠다는 계획 앞에서, 아직까지 공청회 한다는 말 한마디 없다.

덕분에 국민들 대다수는 전자주민증이 곧 도입될 것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이대로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재앙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10년 전 그때처럼, 맞서 일어나야 할 것인가.

* 천주교인권위원회 월간 소식지 <교회와 인권> 2010년 8월(171호)에 게재한 글입니다

<http://www.cathrights.or.kr/news/articleView.html?idxno=4669>

스마트폰 감청과 빅브라더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또 다시 통신비밀보호법이 문제이다. 잊을 만 하면 튀어나오는 휴대전화 감청 논란이다. 지난 31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바 있다.

스마트폰 감청 논란으로 번지면서 이 법안의 향방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뜨겁다. 이한성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2008년 10월이었는데, 그 사이 스마트폰 이용이 급증하였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현재 5천만 명이고, 그 중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올해 말까지 2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는 스마트폰 감청이 핫이슈이다. 블랙베리를 판매하는 림은 자국 내 서비스를 전면 중단시키겠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위협에 굴복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블랙베리 사용자들의 핀 번호와 사용자 코드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인도 정부는 한술 더 떠 블랙베리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검열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블랙베리가 논란이 되는 것은 그 메시지를 캐나다 본사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국의 통신 서비스에 메시지를 저장하는 보통의 스마트폰은 당연히 국내 통신사들을 통해 감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보통의 휴대전화와 다르다는 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주고받는 통신 내용은 휴대전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처럼 기존의 휴대전화에서 이용되던 서비스는 물론, 트위터 등 SNS 서비스와 이메일, 금융거래와 모바일 오피스까지 그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한 나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감청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였다. 말인즉슨,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언제든지 감청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이 상시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전화라기보다 컴퓨터에 가까운 스마트폰에 대한 감청 개시는 나의 컴퓨터에 대한 상시 검열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감청영장 발부율이 연간 97%를 넘는 법원이 과연 견제 세력이 될 수 있을까?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법안이 휴대전화 감청만을 특화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법안의 핵심은 거의 대부분의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의 모든 통신설비에 감청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구나 법안이 구체적인 감청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통신수단이 앞으로 더 감청될지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도 없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개악이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모든 감청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98%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공식 통계에서 그럴 뿐이니 실태가 밝혀지지 않은 직접 감청까지 더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 치솟을 것이다. 지난 해에는,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하는 일명 패킷 감청을 실시해 왔으며, 직접 패킷 감청 장비까지 운용해 왔다는 사실이 근 십 년 만에 처음 밝혀지기도 하였다.

국가정보원이 어떤 감청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더 가질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만 ‘직접 감청’을 허용하는 아량을 베풀고 있다. 결국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국가정보원의 비밀 감청 권력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데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다. 모든 통신수단이 비밀리에 감청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누가 기꺼이 민감한 사안의 취재원이 되겠으며 내부고발자가 되겠는가.

* 미디어오늘 2010년 9월 8일자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667>

불법다운로드를 권장합니다

laron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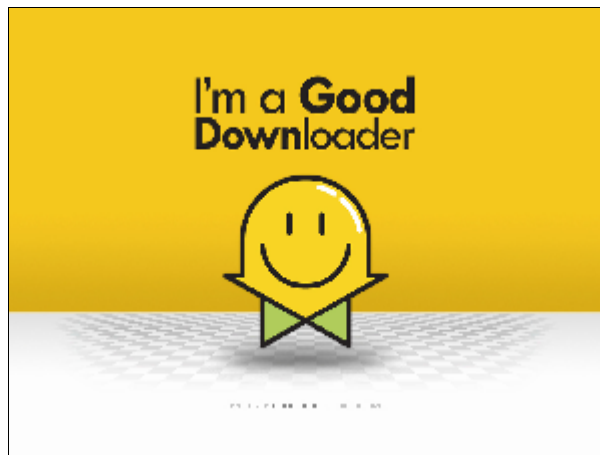
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품이 아닌 것을 쓰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시거나 비난 받으신 적 없나요? 복제품을 사용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본 적이 없나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웹하드 업체를 단속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된다’ 고 이야기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 바닥에 최신 헐리우드 영화 DVD가 길바닥에 널려 있다고 상상을 해 봅시다. 주변의 사람들도 한두 명씩 그 DVD를 주어 가방에 담습니다. 당신도 그리고 저도 그 DVD를 주어듭니다. 그리고 집에서 영화를 봅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DVD는 길 위에 주인 없이 놓여 있던 것이고 당신은 그저 주워서 감상했을 뿐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렇다면 인터넷에서는 어떨까요?

인터넷에는 저작권이 걸려있는 무수한 창작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작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 값을 입력한 다음 엔터만 치면 됩니다. 수많은 사진과 음악, 동영상, 문서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돈을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흔히들 이야기 하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현행 저작권법[일부개정 2009.7.31 법률 제9785호]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친구들과 여행지에서 함께 보려고 영화를 다운받는다거나 음악CD를 컴퓨터에 MP3로 구워 넣는다고 해도 이것은 ‘사적복제’ 이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영화, 음악 등을 웹하드에 올린 다음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행위는 ‘사적복제’가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영리행위에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불법’입니다. 또한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업로드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한정한 범위 안’ 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업로드 된 저작물을 집에서 혼자 즐기거나 집에서 이웃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다운로드 받는 것이 ‘불법’ 이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 굿 다운로더 캠페인 로고〉

정리 해 볼까요?

최신 헐리우드 영화를...

1. 돈을 벌기 위해 웹하드에 올린다 : 불법
2. 그냥 심심해서 인터넷에 올린다 : 불법일수 있음
3. 우연히 다운로드 링크를 봐서 다운로드 받는다 : 합법
4. 너무나도 보고 싶어 공유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는다 : 합법

인터넷에 한번쯤 봤으면 했던 영화의 다운로드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운로드를 받고 영화를 감상하며 배우들의 연기와 감독의 열정을 느끼면 될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행위 어디에도 ‘굿 다운로드’ 는 없으며 ‘불법 다운로드’ 역시 없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의 파괴를 주장하는 악랄한 인터넷 해적의 외침이 아니라, 문화를 향유하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적 복제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굿 다운로드 - 대가를 지불하라’ 는 회유와 ‘불법 다운로드 - 너는 범법자’ 라는 협박 속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법에서 사적복제 규정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자를 파악하고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거래비용이 더욱 커지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며, △이용자의 사적인 이용행위를 파악하여 저작권을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http://ipleft.or.kr/node/2573>).

그런데 지난 2008년 사법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 결정)’** 내가 받은 그 파일이 불법파일인지 합법파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인터넷의 파일에 저작권 꼬리표가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 저작물도 많습니다. MP3 플러그인이 설치되어있는 브라우저라면 여러분이 복제를 하려는 의도와 상관없이 인터넷 임시저장 폴더에 파일이 다운로드 되어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복제는 여러분의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복제-다운로드를 했다 하더라도, 다운로드한 파일의 저작

권에 대해서 늘 확실한 정보만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용자의 사적복제를 단속한다면, 무엇을 단속해야 할까요? 내가 직접 만든 음원이나 그림과 일을 인터넷에 올려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것과 저작권이 걸려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저작물을 다운 받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도가 없는 한, 이용자의 사적복제에 대한 저작권 단속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다면 사적복제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자면, 다운로드 받는 사람의 인식 여부에 따라 합법/비합법 여부가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작물에 사적 이용행위를 일일이 파악하여 저작권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사법부가 내린 판단으로 보입니다. 객관적 기준보다는 행위자의 미필성에 의존하는 적법성 판단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가 MP3를 해적질 할 때 너는 공산주의를 다운로드 하는 거란다” 미국 음반 협회〉

사적복제를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사적복제가 적극 장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적복제가 문화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문화도 홀로 쑥 하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지나간 여러 문화의 흔적들이 토대가 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가 단순히 산업과 경제의 영역이 아닌 우리 삶의 표현이자 삶을 풍요로이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임을 생각해 본다면 사적복제는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권장되어야 합니다.

돈을 지불하는 것만이 좋은(good)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은 많은 이들이 소득 등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향유하고 다른 형태-친구와의 대화, 블로그의 리뷰, 트위터의 감상 평 등을 통해 퍼뜨린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문화

향유의 기쁨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의 향유자로서 또 향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창작자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다운로드 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십시오.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라고 말하는 이들이 법을 빙자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뿐입니다.

* 미디어스, 미디어운동場 2010년 9월 15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9>

해적당 소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 인터넷 검열과 감시,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국민통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적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스웨덴 해적당

해적당은 불과 4년 반 전인 2006년 1월 1일, Rickard Falkvinge가 스웨덴에서 해적당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위한 서명운동을 제안했는데, 이틀동안 3백만건의 접속이 있었고 하루만에 2000명



〈해적당 로고〉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스웨덴에서는 정당 등록을 위해 1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그 해 9월 17일 치뤄지는 총선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명은 자필 서명이어야 했다. 2월 10일, 스웨덴 해적당은 1500개의 서명을 모을 수 있었고, 2월 15일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스웨덴 해적당은 첫 한달 동안 900명의 당원을 모았다. 그런데, 2006년 5월 31일, 스웨덴 경찰이 비트토렌드(Bit-Torrent) 검색 사이트인 해적만(The Pirate Bay, TPB)이 저작권 침해죄로 서버가 압수되고 3일간 접속이 차단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웨덴 해적당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TPB는 저작권 반대 단체인 Piratbyrå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미국영화협회(MPAA)로부터 저작권침해로 고발 당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경찰의 습격 당일날, 500명의 신규 당원이 가입했고, 다음 날에는 930명이 가입하여 당원이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 2006년 6월 3일, 해적당은 다른 정당의 청년 조직과 함께 "해적 시위"를 조직하였고, 파일 공유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스웨덴 해적당은 2006년 9월 총선에서 0.63%를 득표함으로써 세번째로 큰 원외정당이 되었다. 2009년 4월, TPB 재판의 평결 이후 7시간 만에 3000명이 스웨덴 해적당에 가입했으며, 1주일 후 스웨덴 해적당의 당원은 4만명이 되었다. 2009년 9월 15일에는 당원 규모가 50,189명이 되었는데, 이는 스웨덴 정당 중 세번째로 많은 것이었다. 스웨덴 해적당은 2009년 6월 7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스웨덴 투표의 7.13%를 득표하며, 유럽의회 의석 두 자리를 차지하였다. (처음에는 의석이 하나였으나, 리스본 조약 체결로 2009년 12월 1일부터 의석이 두 자리가 되었다.) Christian Engström이 해적당의 유럽의회 첫 의원이 되었고, Amelia Andersdotter가 두 번째 의석을 차지하였다. 2010년 5월 18일, 스웨덴 해적당은 TPB를 호스팅하기 시작하였다.

해적당의 정책은 크게 3가지이다. (1) 자유 문화 - 균형잡힌 저작권을 위한 제도개혁 (2) 자유 지식 - 특허제도의 폐지 (3)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1) 자유 문화 - 균형잡힌 저작권을 위한 제도개혁 : 저작권 제도의 공식적인 목적은 문화적 창작과 창작물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이러한 균형은 완전히 사라졌다. 현행 저작권법은 창작과 확산을 장려하는 행위마저도 금지하고 있다. 해적당은 이처럼 무너진 저작권 제도의 균형을 회복하려고 한다. 문화적 창작물의 비영리적 복제와 이용은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파일 공유와 P2P 네트워크는 장려해야 할 일이지 형사 처벌할 일이 아니다. 문화와 지식은 공유가 많이 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인터넷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공 도서관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가 예술적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독점할 권리는 출판 후 5년으로 보호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의 보

호기간은 영터리다. 저자가 죽은 뒤 70년 동안이나 돈을 벌 수 있도록 할 이유가 없다. 어떤 영화회사나 음반회사가 앞으로 100년뒤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하겠는가? 문화 작품의 상업적 수명을 이제 크게 줄어 들었다. 1, 2년 안에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한 작품이 그 후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보호기간 5년도 길다. 또한 비영리적 이용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DRM 기술 자체를 금지해야 하며, DRM 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적 계약도 제재해야 한다.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사적 계약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저작권 제도의 균형 회복은 요원하다.

(2) 자유 지식 - 특허제도의 폐지 : 의약품 특허는 제3 세계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의약품 특허 제도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연구를 한 과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보다는 특허권을 얻기 위해 감추도록 만든다. 이에 대한 최근의 사례가 조류독감 사례인데, 지구적인 전염병조차 연구기관들이 특허로 폐돈을 벌 기회를 포기하도록 하지 못했다. 해적당은 의약품 특허에 대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공공지출을 절반으로 삭감하면서도 제약 연구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분야의 특허 역시 도덕적으로 역겹거나(가령 생명체에 대한 특허), 심각한 폐해가 있거나(가령 소프트웨어 특허와 영업 방법 특허), 무의미(가령 성숙한 제조업 분야의 특허)하다. 유럽은 특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더라도 잃은 것은 없고 얻을 것만 있다. 유럽이 이를 주도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결국 따라올 것이다.

(3)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 미국의 911 사건 이후 유럽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왔다. 해적당은 시민 감시에 반대하고,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EU의 Data Retention 지침(인터넷 로그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지침) 및 인터넷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FRA법에 반대하며,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 무역협정(ACTA)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스웨덴 해적당은 위와 같은 정책에 초점을 맞추며, 그 외의 좌/우파 정당의 정책 영역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해적당 인터네셔널

2006년 스웨덴 해적당이 출범한 이후,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각 국에서 연이어 해적당이 창당되고 있다. 스웨덴에 이어 독일 해적당 역시 2009년 9월 30일 있었던 지방의회 선거에서 두 개의 시의회 의석을 얻는데 성공했다. 현재 호주,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15개 국에서 해적당이 공식 정당으로 등록되어 활동 중이며,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20여개 국에서 해적당 설립이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4월 16일-18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 전 세계 해적당의 네트워크인 해적당 인터네셔널(Pirate Parties International)이 설립되었다. (전 세계 해적당에 대한 현황은 위키피디아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Pirate_Parties_International)

해적당 관련 사이트

- 해적당 인터네셔널(Pirate Parties International)
<http://www.pp-international.net/>
- 위키피디아 : 해적당 인터네셔널
http://en.wikipedia.org/wiki/Pirate_Parties_International
- 스웨덴 해적당
<http://www.piratpartiet.se/>
- 위키피디아 : 스웨덴 해적당
http://en.wikipedia.org/wiki/Pirate_Party_%28Sweden%29

* 정보공유연대 뉴스레터 2010년 8월 24에 실린 글입니다.

<http://ipleft.or.kr/node/2625>



section 011. 진보네 워크센터		059
독립영화와 저작권	오병일	060
해적이 온다! - Amelia Andersdotter 소개	오병일	065
서버모금에 참여한 유물론자들 + α		068

독립영화와 저작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시네마錢쟁② 인디플러그, 불법업체에 선전포고," 스포츠칸, 2010.7.22.²⁸

"독립영화, 불법 다운로드와 전쟁선포 '민형사 고소'," 머니투데이, 2010.7.22.²⁹

며칠 전에 위 두 기사를 보았다. 너무 황당해서 트위터에 '충격과 실망'이라고 썼다. 동조하는 리트윗도 있었고, 이런 반응이 '충격과 실망'이라는 리트윗도 있었다.

국내 메이저 영화업계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그냥 그런가보다 했을 것이다. (물론 저작권이나 불법복제에 대한 영화업계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한 이유는 그 발언의 주체가 독립영화의 온라인 유통을 하고 있는 '인

28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007222103413&sec_id=540401&pt=nv

29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0072211311182020&type=1&outlink=1>

디플러그³⁰⁾였기 때문이다. 물론 인디플러그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지만, 독립영화를 하시는 분이 만들었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영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독립영화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나 모임에 몇 번 참여한 적은 있지만, 난 독립영화 '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태준식 감독 등 저작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알기는 하지만, 다른 독립영화인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어쩌면 지금까지 저작권 문제가 독립영화의 제작이나 배포 등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이 없었을 수도 있다. '워낭소리'나 '똥파리' 등 일부 독립영화가 소위 히트를 치고, 독립영화의 디지털 배급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독립영화의 저작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쨌든 '충격과 실망'이라는 표현에 드러나듯, 현행 저작권 체제와 내가 생각하는 독립영화의 정체성은 양립하기 힘든 것이었다. (최근 이 이슈와 관련하여 정보공유연대 허민호씨가 미디어스에 컬럼을 기고하였다. 정보공유연대 내에서 일정하게 토론이 있었고, 내 입장은 허민호씨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 [허민호의 평범한 발작] 인디플러그의 활동과 독립영화계의 침묵 - 독립영화는 무엇으로부터 독립했는가?, 미디어스, 2010.8.13.³¹⁾)

내가 생각하는 독립영화가 기존 권력체제에 비판적인 영화라면, 저작권 체제는 독립영화가 비판적으로 다뤄야할, 정보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한 지배체제이다.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넷의 그간 활동을 통해 현행 저작권 체제의 문제에 대해 수없이 지적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자세하게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요는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 제도가 선진 자본주의 제국이 7~80년대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초과이윤 착취를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며, 이제 지적재산권 제도는 창작자, 혁신가를 보호한다기 보다는 지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초국적 제약, 문화 자본은 국제기구 및 국내 권력기관에의 로비를 통해 지적재산권 제도를 계속적으로 강화시켜온 과정에 대해서는 내 블로그에서 한번 소개한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 지적재산의 세계화>라는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³²⁾)

30 <http://indieplug.co.kr/>

31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42>

32 <http://blog.jinbo.net/antiropy/?cid=13&pid=436>

내가 생각하는 독립영화가 인권과 문화 다양성을 위한 영상운동이라면, 저작권 체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에 대한 접근권과 문화향유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가능해진 다양한 문화 창작을 제약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억압한다. 예컨대, 디지털 도서관이 저작권때문에 무력화되고, 불멸의 이순신 팬카페에 올라온 동영상 클립과 사진이 삭제되는가 하면, 미쳤어를 따라부른 아이의 동영상을 올리는 것조차 제재당하고 있다. 불법복제 단속으로 청소년이 자살하는가 하면, 저작권 침해로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거나 게시판이 폐쇄될 수도 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

독립영화인들에게 저작권이 도움이 될 지도 의문이다. (이는 대다수의 비영리 창작자들에게 마찬가지로.) 특히, 어문 저작물의 경우 인용 등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반면, 영상물의 경우 타인의 음악이나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 많은 영상 클립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다큐같은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일일이 이용허락을 얻거나 로열티를 지불하기 힘든 독립영화인이나 비영리 창작자들에게 저작권 체제는 새로운 창작을 위축시키는 매우 중대한 제도적 제약이 된다.

내가 인디플러그의 굿다운로드 캠페인 동참에 실망한 것은 독립영화와 저작권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다. 굿다운로드 캠페인은 불법복제 단속의 또 다른 얼굴이며, 영화의 발전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영화자본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저작권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이용자들의 권리와 또 다른 창작의 위축은 은폐한다. 물론 현행 저작권 체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독립영화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관점을 달리할 것이다.

만일 인디플러그는 독립영화를 취급품목으로 할 뿐, 어느 영화업체와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오해한 것이니 앞으로 인디플러그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은 없을 것이다. 다만, 독립영화인들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며, 그래서 이 논의는 인디플러그가 계기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독립영화계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 있다.

혹자는 현행 저작권이 '과도'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창작 과정에서는 저작권이 독립영화계에 제약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료로 서비스되고 있는 독립영화의 입장에서는 불법복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리고 이용자도 아니고 독립영화 불법복제로 이익을 얻고 있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고소,

고발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문제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독립영화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하고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독립영화 역시 기존 주류 영화의 제작-유통-소비 시스템에 포섭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작품의 관점에서는 이는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바람직한 저작물 생산-유통-향유 시스템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현행 저작권 체제가 과연 문화의 향상,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인가의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 일부 독립영화는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독립영화가 기존 저작권 시스템을 수용하는 것이 과연 독립영화(및 비영리 영상물) 전반의 창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가 여기서 '불법복제'라는 말을 썼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유통되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며, 무엇이 '불법'인가하는 문제 역시 이슈이다. 예컨데, 나는 개인의 비영리적 복제/다운로드는 공정이용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행 법상으로도 허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정부는 이를 불법화하려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나는 현재 인디플러그가 채택하고 있는 사업모델(유료 다운로드 서비스)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인디플러그를 책임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디플러그 구성원들이 현실적인 조건, 가능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채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립영화의 협력자로서 현행 저작권 체제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갖고 있다면, 저작물의 불법(?) 다운로드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굿다운로드 캠페인에 결합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만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지 않더라도) 좀 더 대안적인 사업모델도 함께 실험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다.

영화의 배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독립영화의 입장에서 온라인은 새로운 기회일 것이다. 그래서, 인디플러그도 만들어졌을 것이고. 불법 다운로드라고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이 다운로드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영화가 배급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넵스터나 소리바다가 이슈가 될 때에도 있었던 전통적인 논쟁인데, 넵스터나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의 향유층이 확대되어 오히려 음반 판매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었다는 것) 오히려 독립영화의 자발적인 유통과 배포를 막는 것보다는 그렇게 확대된 독립영화의 대중들을 어떻게 독립영화 생산자에 대한 지원이나 독립영화 생산의 활성화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예스맨 프로젝트(The Yes Men Fix the World)>를 P2P를 통해 배포한 보도(<http://vodo.net/>)의 경우, 매월 영화를 P2P로 배포하고 다운로드의 후원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콘텐츠 자체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되, 다른 방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고자 하는 것은 (운동권의 공허한 이상이 아니라) 심지어 웹2.0 시대의 자본의 전략이기도 하다. 예컨대, 유튜브는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에 대해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보여주고 그 수익을 저작권자와 나눈다. 독립영화라면 디지털 환경에서 가능해진 영상물의 유통과 이용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아니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수용자들의 참여와 지지를 새로운 창작 기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적 사업 모델을 고민하는 방향이어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해 독립영화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 독립영화 창작자들의, 그리고 독립영화를 아끼는 사람들의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적이 온다! - Amelia Andersdotter 소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0월 17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정치인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Amelia Andersdotter가 한국에 옵니다. 인터넷 주인찾기 2차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홍보는 아마도 추석 이후 쯤에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³³.

이번에 초청되는 Amelia에 대한 간단한 소개자료를 대충 번역해보았습니다. 짧은/좌파/여성/해적인 것 같습니다.

33 편집자 주 : 여러분이 이 계간지를 받아 보실 때 즈음에는 많은 홍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http://en.wikipedia.org/wiki/Amelia_Andersdotter

1987년 8월 30일 Enköping에서 출생한, Amelia Andersdotter는 스웨덴 정치인이며, 2009년 선거에서 해적당 의석으로 유럽의회 의원(MEP)이 되었다. 그녀는 당내 투표에서 Christian Engström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이 비준됨으로써 그녀의 의석을 획득했다. 그녀는 Lund에 살며, Lund 대학의 수학과 학생이었으나 유럽의회 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퇴하였다. 그녀는 학위를 얻기 위해 함수분석(functional analysis) 과목 하나와 논문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Amelia Andersdotter〉

2007년 이후 그녀는 해적당의 청년 조직인 '청년 해적(Ung Pirat)'의 국제 코디네이터를 담당해왔으며, 2010년 3월 이를 사임하였다.

Lund 대학 학생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만일 자신이 당선된다면, 유럽의회 의원 봉급의 일부를 '시민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거래 과세연합(Attac)', Ordfront(스웨덴 좌파 출판사인 듯), 그리고 국제 엠네스티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ameliatillbryssel.se/english>

제 이름은 Amelia Andersdotter 이고 21살입니다. 스웨덴 남부 Lund 대학에서 경제학과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스웨덴 해적당의 최고 득표자 중 하나입니다.

저의 정치적인 포부는 저작권법의 완전한 개정, 특히 시스템의 완전한 철폐, 그리고 보안(security), 안전, 시장과 프라이버시권 사이의 보다 균형잡힌 접근(특히 후자-프라이버시권-가 더욱 많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입니다. 저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시민적 권리를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6년 봄부터 3년여간 이러한 목적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그 기간동안 저는

스웨덴 해적당과 관련된 정치적 청년 조직인 '청년 해적(Ung Pirat)'의 발전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저는 당의 유럽 정치 프로그램과 유럽 및 전세계의 해적당과 청년 해적 사이의 협력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amelia.andersdotter@piratpartiet.se 로 이메일 보내주삼.(^^) +46 722063698 로 전화주어도 좋은데, 나는 GMT+2 시간대에 있다는 것을 주의 해주삼. 이 페이지의 이미지들은 자유롭게 사용하삼.

<http://www.ameliatillbryssel.se/om-mig> (스웨덴어 홈페이지의 About me)

저는 21살이고, Enköping 에서 자랐지만 3년 동안 Lund 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과 스페인어를 공부하지만, 자발적인 활동과 잘 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유시간에 저는 청년 해적들과 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Lund의 학생 라디오 UPF(http://en.wikipedia.org/wiki/Radio_UPF)에서 Malmo의 '시민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거래 과세연합(Attac)'에 이르는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에 동의합니다.

자유시간 독서의 대부분은 EC 문서와 해적당 관련된 것들이지만, SF와 코믹스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작품은 Ulf Lundkvist 의 Assar와 Stan Sakai의 Usagi Yojimbo 입니다. 여름에는 맨발로 걷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

* 아멜리에의 방한 그리고 해적당의 활약상에 대한 소개는
해적당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모임 <http://pirateparty.kr/> 로 접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다시피 진보넷은 일체의 상업 광고를 거부하고, 오로지 회비 수입으로만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돌아가기 때문에 수명이 3~5년밖에 안 돼서 자주 바꾸고 있어요. 우리는 진보블로그라는 공간을 점유하고 우리의 정치를 얘기하고 일상을 나누며 잘 쓰고 있는데, 이 공간의 물리적 기반인 서버까지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가 하는 생각으로 서버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블로그에 기여할 기회만을 엿보던 상냥한 분들! 여태까지는 별 생각 없이 이용하는 마음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들! 이미 한 배를 탄 여러분, 함께 진보블로그를 만들어 온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서버모금에 함께 해 주신 유물론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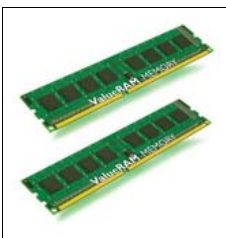
본체 : Dell R410

익명, yog, 마이너는아름답다, honggili, 마리화나, 익명, 토끼, turteye, 강동진, 가납사니, lurlu, marishin, 라이즈, 낮에뜬달, 진동훈, 해민, 주봉희, 캔디, foract, 네오스크럼, 푸우, 잠덜꺼분자, 해미



CPU : Xeon E5504

덩야핑, 바람들, 새벽길, 미류, 박군, 에밀리오, 오사마, in-sun, 익명, 새벽길, 두리, 클래식, 김강, 무위, 냉이, 쉐보이



메모리 : ECC DDR3 2G

송, 산초, 스머프, 마성은, 이니스, 두바퀴, 하루, 공룡, 조대환, 네오폴, 엔지



하드디스크드라이브 : SAS 15Krpm 146G

나은, 달군, 익명

하드디스크드라이브 : SAS 15Krpm 300G

라브, 최용준, 풀소리, 녹색동물, 니나, 조지콩, doiin, 빨간똥똥이, 구멍, 돌, 태준식, 혼불

하드디스크드라이브 : SAS 7,200rpm 1T

d_-b, 나랑, re, 요꼬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총 3,257,500원이 서버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진보블로그 서버의 2대 총 구매비용은 6,710,000원이었습니다. 모금과 진보넷의 운영비를 통해 서버를 구매했고 지금은 모두 썩썩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버가 활동하는 IDC들어가기 전 진보넷에 들러 위용을 뽐내는 서버 내부〉

유물론자여! 전 우주를 그대의 영광아래 뛰놀게하라!

ella 4hacke bright igoomy ikd01 next421 **positro**

nenmai **wangkm** twofus shincl eeseob_n mari supul2

SHHA kambe anggoo10 **peacepia** Hserin tae21 may

jinbo13 delphy action horong arcase meiste rainme

young82 redgan damon abird33 seapear underis **anbada01**

angle tsn eejoon **homin99** nojisimi

이 분들의 뒤를 이어 후원회원이 되고싶으시면...

쌀을 주셔도 되고,
반찬을 주셔도 됩니다.

쓰지 않는 이불을 주셔도 되고, 알콜(?)을 주셔도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셔서 지속적으로 으랏차차 기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를 자랑하는 **메일링리스트**와 **호스팅계정**, 즐겁고 풍성한 내용을 담은 **계간지 <액트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독립 영화관 할인 및 무료 입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http://center.jinbo.net/member/new.php> 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은행 057-036794-04-019
예금주 진보네트워크

정보화 시대가 진행되지 10년.
이는 것, 그 모두가 기록되는 감시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하 밑에 로봇 물고기를 두어 물속까지도 감시하겠다 합니다.
네마다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위협적인 문구들로 가득합니다.
막이 - 흉한 일을 막기 위한, 미신과도 같은 감시에의 맹신.
트 집 잡고 싶어서 괜한 말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감시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저들의 미신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